

명예로운 이름 더 빛나게 “그 헌신의 깊이를 알립니다”

인터뷰 - 든든한 보훈인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장병길 주무관

드넓은 대전현충원 묘역에 흰 눈이 쌓여 장관이 펼쳐진 가운데, 묘소를 누비며 비석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이가 있다. 반듯한 비석 위에 선명한 글자들이 빛을 내고 있었고, 비석을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겼다.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장병길 주무관(35)은 지난해 비석건립 업무를 담당하며 빛바랜 비석을 재정비했다. 1980년대 문을 연 대전현충원. 40년의 세월 앞에 몇몇 비석의 글씨도 희미해 지자 비석건립을 맡았던 장병길 주무관은 흐려진 비석들을 찾아내 다시금 국가유공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글씨를 채워 넣었다.

전체 면적 약 330만㎡, 총 9만여기의 비석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를 향한 예우의 기본이라 생각하며 꼼꼼하게 살폈다.

또 그는 매년 4,000~5,000여명의 비석을 건립하는 일을 담당하며 비석이 보다 빠르게 제작될 수 있도록 내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도 추진했다. 덕분에 2주 정도 걸렸던 기간을 1



눈 내린 국립대전현충원. 장병길 주무관이 비석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주 이내로 단축했고, 올해는 6~9주 정도 걸리던 비석 제작 기간을 4주~5주로 줄이기

위해 일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제가 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습시다. 어색하고 쑥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저 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제가 한 일은 매일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내고,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들을 더 예우해드릴까 고민하는 동료들을 따라 한 것이

전부입니다. 든든한 보훈인으로 선정됐으니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는 보훈처 공무원이 되기 전, 자세부터 남달랐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관찰 보훈청에 견학을 요청했다. 덕분에 막연히 알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어떤 분들인지 자세히 알게 됐고, 자신의 외할아버지께서 6·25전쟁 참전 공상 군경이었다는 의미도 새삼 명확하게 알게 됐다. 국가유공자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한 순간이었다.

그런 순간은 자주 찾아왔다. 그는 부산지방보훈청 근무 당시 1년에 한 두 번씩 생존 애국지사의 댁을 방문해 안

부를 전하곤 했다. 대전현충원으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사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고, 이후 대전현충원에 모셔진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안장식에 참여했다.

“어르신과 깊게 대화를 해보진 못했지만 반갑게 맞아주시던 지사님의 얼굴과 목소리,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굳게 손을 잡아주셨던 순간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가끔 국가유공자 안장식의 진행을 맡기도 하고, 안장식에 참석해 슬픔에 찬 유족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전현충원’이라는 다섯 글자가 보훈가족에게 큰 자부심이자 명예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헤아려야 진정 ‘든든한 보훈’

내가 생각하는 ‘든든한 보훈’

복지과를 떠나 다른 부서업무를 몇 년간 근무하다 다시 복지업무를 맡으면서,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보훈가족의 재가복지 현장에도 큰 불편과 어려움이 많다.

이제는 평균나이 80세가 넘는 고령의 보훈가족들은 예전에 여가생활을 누리던 마을경로당과 복지관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의 왕래도 막히면서 함께 정을 나누고 보듬는 기회마저 더 줄어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르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가장 먼저 방역마스크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어르신

께서 마스크 하나를 2~3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업들의 후원을 얻어 모든 재가복지대상자에게 3회에 걸쳐 마스크를 전달해 드렸다.

지정 자체 긴급출동119를 꾸려 독거 대상자와 건강이 좋지 않는 부부세대를 위해 주1회 밀반찬과 국을 지원하고 필요시 생필품과 의약품 구입 등의 긴급서비스도 해드렸다. 보훈섬김이의 방문이 멈추면서 홀로 식사를 준비하는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은 “지청에서 제공하는 국과 반찬이 무엇보다 고맙고, 덕분에 기운을 얻는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

코로나로 힘들고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잊지

않고 후원을 주신 많은 지역기업체의 따뜻한 나눔은 너무나 고맙다.

지난해 연말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생겨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펼친 봉사활동 ‘감사 가득! 기프트 박스’라는 프로그램이 그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손편지를 직접 제작하고, 비즈를 이용해 마스크스트랩을 만들어 작은 선물과 함께 국가유공자분께 전해 드리는 활동이었다. 큰 반향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받아 보신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곳곳에서 편지를 받고는 1주일 내내 꺼내 읽고 또 읽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르신들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 우리의 희생이 잊혀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한번도 본적 없는 학생들이 나를 위해 그리고, 만들고,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존경하고 감사하다고

하니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말씀하신다. 이 작은 사연과 감동을 보며 우리가 국가유공자분들의 의식주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달려오지는 않았나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 ‘든든한 보훈’이란 보훈가족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지원뿐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여 드리는 것 아닐까. 자신들의 희생과 공헌이 잊혀져가는 ‘과거 소실적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감사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

하루 속히 코로나의 불편하고 불안한 터널을 벗어나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그 속에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도 더욱 높이 올라가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한다.

김현지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